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8월 발행 (제 64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짐승의 각인' 예레미야

◎간증 '계약을 지키다'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짐승의 각인' 예레미야

이번에는 "짐승의 각인"이라는 주제로 살펴봅시다. 계시록은 종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여기서 짐승의 각인을 붙이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해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배교 때문에 마지막은 짐승의 표를 붙일 수 있게 된다는 무서운 미래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시록 13 장을 살펴 보자.

1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그는 곧 짐승의 나라 미국은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이기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즉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종말의 날에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기독교인의 배교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 자신의 희망이나 이상과 명분이 아니라 또한 교화 된 교리도 아니고, 그러나 쓰여진 말씀에 따라 이해를 구합시다.

여기에서 종말의 날에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짐승의 나라에 승리를 얻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짐승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싸움을 걸어 이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기독교도 교회도 짐승의 나라의 획책에 저 그 교리도 가르쳐도 소중한 믿음도 모두 빼앗겨 무너져가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유감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타당합니다. 전 주로 첫 오순절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십자가에 그 신성 모독 때문에 예루살렘은 적의 군대, 로마 군과 싸우고 그들에게 쓰러져 궁도 또한 붕괴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싸움의 날에 로마에 승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분을 쫓아 소돔과 이집트가 교회에서 십자가에 넣습니다. 그 신성 모독 따라서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붕괴하고 그 교회의 토대 가르침은 무너집니다. 바탕 선지자들과 사도보다 더 모퉁잇돌 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마저 교회에서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나라의 기독교 괴멸 작전에 감쪽같이 쓰러져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별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 않으면 안 한 것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이방 백성 로마로 공격했을 때, 그때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무했다 것입니다. 혼자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종말 적 그리스도가 교회의 토대를 무너 뜨릴 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 한다면, 그 날 배교의 교회에 그쳐 더욱이 생명을 얻을 사람은 아마도 전무가 될 것입니다. 배교의 교회에 머물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산으로 도망 친다"것, 즉 지하 교회에 탈출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 날,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공격의 날이 배교의 도시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 쳤다"기독교는 스스로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날 배교의 교회에 그치지 않고 이 교회에서 탈출자는 영생을 저장합니다.

요한복음 13: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다른 짐승"은 무엇이냐하면, "어린 양 같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기독교 교회입니다.

"두 뿔"은 그리스도 교회의 2대 세력 가톨릭과 개신교입니다. 그 날, 전 세계의 교회는 배교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짐승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교회는 짐승의 나라 미국의 압도적인 권위와 압박에서 짐승과 용, 사탄의 의지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 중 배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밀려 영원한 생명을 잃게됩니다. 그 것이야 말로 이 계시록 13 장의 골자이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용처럼 물건을 말했다."

그날 공공의 교회는 배교 화 그리스도의 대언자보다는 용 사탄의 뜻을 말하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지만, 그날 수화 한 교회도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정,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를 해야한다 자신의 곳만 유일한 구원이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등 독점적 인 가르침은 좋지 않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12 ○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일했다."는 무슨 뜻인가? 라고하면 짐승이 된 그리스도 교회는 모든 짐승 교리를 그리스도인 받아 들인 위해 첫 번째 짐승, 즉 미국의 권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한 협박, 강제 법률에 따라 모든 짐승 교리가 교회에서 강제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의 치유한 첫번째 짐승"은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 된 것은 인간을 숭배해라,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숭배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 그리스도의 것 등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문맥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화재는 오순절 날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하늘에서 불, 즉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되지 않는 악령의 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영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까닭입니다.

요한복음 13: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날 짐승이 된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짐승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각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의 국가 공인의 이적과 기사의 수를 말합니다.

물론 그날 짐승의 나라 미국은 성령의 그릇 등 공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베니을 비롯한 악령의 그릇은 공인 된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 (image)이란 무엇인가라고하면, 이것이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인간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사탄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에 맞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이시며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image)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는 인간은 짐승의 나라를 구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게 짐승의 표를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독교인을위한 '준비된 인물'입니다. 그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명확하게 기독교를 향한 영생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이 날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날지라고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의식한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한 것으로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짐승을 조종하는 사탄의 모든 거만하고, 신성 모독, 교만을 체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그리스도 이상의 존경, 믿음, 헌신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게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원 자체입니다.

"그 짐승의 동상을 건설 같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동상을 건설"라는 말은 비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것은 그 날 배교의 교회 그리스도인은 적 그리스도를 "스스로"자신의 손으로 추천하고 선정하고 교회의 신으로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쓰는 우상 숭배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와 돌을 깎아 "스스로"우상을 만들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 예배의 중요한 점은 그것이 형태로는 '백성이 스스로 선택한'이라는 형태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13: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짐승의 형상, 즉 적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물건을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라는 개인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강요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살해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날까지 배도의 교회에 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공공의 교회를 나와 초막, 즉 지하 교회에 들어갈 수 올바른 길입니다.



미국의 동성 결혼 커플

요한복음 13: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여기에서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각인을 받게 된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각인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다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약을 의식하고 대항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신명기 11:18 ○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구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묶어 휘장으로 이마 위에 놓는다'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손과 이마가 관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각인이 오른손 또는 이마에 붙은 이 때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식하고 대항 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이 짐승의 표는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생명의 계약에 대상을 향해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짐승의 각인을 받는자는 모두 하나님과 영생의 계약이 파기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정한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에 "누구든지 짐승의 이름의 각인을 받는자는 밤낮 쉬을 얻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듯이, 짐승의 각인을 받는자는 영원히 휴가를 받지 않고 영원한 멸망 에 들어갈 것입니다. 차근 차근히 이것을 이해해야합니다.

이날은 다니엘서에 기록 된 한 주 계약 (7 년 계약)의 일환이며, 다니엘서에 "그는 한 주 동안 많은 것들과 굳은 계약을 체결"라고 쓰여진 기간의 구체적인 마라 설명입니다.

그 날 배교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적 그리스도와 단단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증거로서 짐승의 각인까지 받게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 된 "그 말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황폐이 정해져있다."(다니엘 9 장 26 절)는 바로 이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파괴, 붕괴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언되어있는 것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한복음 13: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매매가라는 말은 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매입한다고 의미가 있다)와 관련이 있으며, 교회의 구원과 대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짐승의 각인을 받은 자 외에는 구원과 구속 등에 관한 소중한 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교의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을 받는 사람은 전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적 그리스도되는 개인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666"입니다. 그래서 아마도이지만 이름 알파벳 숫자 합계가 666 이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에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적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힌트가 여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시록 13 장도 종말의 날에 있어서 교회의 철저한 배교 황폐,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하고 있지만, 종말의 날의 큰 포인트는 매우 유감이지만, 교회가 배교 해 버리는, 이렇게이기 때문에 배교의 교회가 철저히 유린 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과 영생의 계약도 모두 빼앗아 떠나 교회는 파괴되고 만다. 즉 하나님 계기도 공으로 교회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하나의 돌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배교를 추진하는 것, 황폐시키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짐승이며, 구체적으로는 짐승의 나라 미국임을 알아 봅시다. 다음과 같이 씌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3: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짐승의 나라 미국은 중 하나님의 이름을 욕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표시 할 수 비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점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아이를 교사가 비난하거나 질책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경영하는 다방에 말씀을 내거는 그리스도인 주인이 비난되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짐승 적 경향은 중 확대하고 전 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 "용을 경배"라고 적힌대로 온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 용, 사탄 숭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욕했다."

"장막"은 하나님을 품고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따로 하늘의 천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그날 짐승의 나라 미국 주도로 올바른 기독교를 비난하는 여론과 붐이 크게 일고

오게됩니다.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한 원리주의자라고, 컬트라고하거나 비난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큰 대폭적됩니다.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노방 전도를 할 기독교인이 체포되기도합니다. 또한 성경에 따라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체포되기도합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유죄로되어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짐승의 나라의 본령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운동은 더욱 더 미국에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 전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있다."**라고 적힌 때이며 우리의 믿음을 시도 진정 주로 충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는 구분된다 날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날에 "환난 전에 끝한다 때문에 어떤 인내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보다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있다."**(요한 계시록 13 장 10 절)과 환난 시대를 통과 그때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성경의 살인과 가르침에 따라 낙태 반대 (prolife)을 시연 미국 경찰에 체포 된 그리스도인 고교생

'계약을 지키다'

이번에도 예배 메시지에서 배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약"라는 말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었으므로, 괜찮으시다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시편 105:10 야곱에게 세우신 울레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105: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0 절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에 대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함은 서로의

조건을 완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집주인 쪽에서 조건을 내서 우리가 그것을 삼키고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집을 빌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형태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상속 재산으로 당신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라고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17: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17:9 ○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17:9 ○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11 절에서는 '축복'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계약 (하늘 나라를 상속하는)"가 연결되어있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계약"에 대해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리한 계약을 해 버리고 하루 이틀 임대료를 체납했다고합니다.

그러더니 관리인에게 열쇠를 대체 해 버려, 집안에 들어갈 수 없게되었다고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두지 않을 수가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계약을 지켜야 할 것인가? 에 대해 살펴 싶습니다.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 "계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 후에 네 자손 사이에 대대로 걸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는"고 있듯이, 훗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은 하늘의 도시 하늘의 약속의 땅을 받게한다는 계약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기브 & 테이크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들어갈 베 ㅎ 곳에 넣어 없습니다.

17: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도 '계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 반복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을 보지 않고, 우리와도 연결되었다는 것을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고기의 할례 '라는 것이 있어, 그것은 남성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하지만 남녀에 관계없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할례"는 기독교인으로, 고기를 잘라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할례"을 간섭하지 않길 원한다면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은 '무효'가 될 것임을 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을 받는지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가 유일한 지켜야 할 것은 '고기를 잘라 "입니다. 그것은 관해서 불완전 안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육체가 잘려 나갈 것인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조건은 단 하나뿐 "고기"가 잘려 있는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할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천국"을 受け継げ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명확하게 잘리는 면 여유롭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할지 여부 포인트= "고기"가 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기"에 따른 그리스도인 생활은 "위험한"라고합니다.

이번 요점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위한 계약은 단 하나뿐입니다. "할례를 지켜라!"라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는 단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남녀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결론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인 들어가야 곳에 들어가는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고기를 분리"것입니다.

또한 "고기"는 끈질 기계 좀처럼 잘린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어떤

의미에서 평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께서 요구하고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뿐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들에서 하나님은이 일에 매우 집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명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꽤 잘린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마지막까지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는 평생 동안 계속 받고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육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만, 개인적으로는 꽤 중요한 일 아닌가? 생각 했으므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일지도 모른다구나,라고 생각하면, 꼭 실천해 나갑시다. 이번에도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기"가 잘린다면 그리스도에 받아 들여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다